



| | | | |
|------------|-------------------|-------------|---------------------------|
| 코스피 | 2029.60 (0.00) | 코스닥 | 713.68 (0.00) |
| 금리 (미국 3년) | 0.826 (+0.008) | 환율 (USD-달러) | 1238.50 (-1.10) (5.29) |



[뉴스]
물류업계
코로나 비상
02

사회적 거리두기? 호텔 프라이빗 파티 300만원에도 불티

브라이덜 샤워, 생일 파티 등 외부접촉 최소화 하며 즐기는 소규모 호텔파티 패키지 인기



반얀트리 서울 '카바나 풀 샤워 & 생일 파티 패키지'

봄의 절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 가고 어느덧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하늘길이 막히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호텔 여가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5월 중순이 되면 호텔에서는 야외 및 실내 수영장 물놀이가 인기가 있다. 2030을 대상으로 한 호텔 풀파티(Pool party)는 강남과 홍대 주요 클럽을 방불케 하는 인기를 매년 자랑해 왔다. 특급호텔들도 호텔 객실을 투숙하지 않아도 물놀이를 하며 가볍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게 호텔 야외 및 실내 수영장을 비투숙객들에게 개방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이 북적이는 곳은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비투숙객에게는 수영장 및 라운지를 개방하지 않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여가를 즐기는 호텔 패키지가 인기다.

특히 최근 2030여성 사이에서 브라이덜 샤워 및 우정을 과시하는 파티가 유행하면서 특급호텔에서는 소규모 프라이빗 파티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31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따르면 오아시스 카바나에서 프라이빗한 파티를 계획할 수 있도록 '카바나 풀 샤워 패키지'와 '카바나 생일 파티 패키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패키지는 모두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에 자리한

오아시스 카바나를 파티 장소로 사용해 독립적인 공간으로 야외 수영을 즐기며 프라이빗한 파티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카바나 풀 샤워 패키지의 가격은 12인 기준 220만 원, 카바나 성인 생일 파티 패키지는 14인 기준 300만 원이다.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6월 카바나 파티 예약건은 50%를 넘겼다. 반얀트리 야외 라운지 및 객실도 주말 이용률은 90%를 자랑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특급 호텔 투숙률이 10%대를 웃돌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인기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워커히 호텔 앤리조트(이하 워커히)에서도 소규모 프라이빗 파티용 객실 패키지 2종을 선보였다.

다른 특급 호텔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객실 투숙률은 10~20%대로 감소하고, 뷔페 및 라운지 이용객도 급격히 줄었다. 이와 반면 프라이빗 파티 문의 및 예약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프라이빗한 여가 문화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관련 패키지를 꾸준히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두산 정상화 '차질없다'... 1.2조 추가지원

이번주 추가 자금지원 여부 결정 인프라코어·밥캣 매각대상 제외 두산중 친환경 에너지 재편 추진



두산그룹 /연합뉴스

정부가 두산그룹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주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대 추가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6월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채 차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주 두산그룹에 대한 1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산그룹의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조치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 및 핵심자산 매각과 함께 추가 자금을 지원해 두산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계열사·자산 매각으로 3조 마련 우선 채권단은 두산그룹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라 주요 계열사와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두산그룹도 자산 매각으로 3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 대상으로는 두산의 자체 사업인 모트론BG,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등이 꼽힌다.

현재 시장에는 두산의 사업부문인 모트론BG가 5000억원 안팎의 매물로 나와 있다. 모트론BG는 굴삭기와 같은 건설기계로 들어가는 유압부품 외에도 육·해·공군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정밀 유압부품을 만든다. 지난해 매출액은 5627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89억원이다. 모트론BG는 다음주까지 예비입찰을 거쳐 오는 7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두산타워도 마스틴투자운용과 8000억원 대에서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7000억원에 내놨지만, 동대문 랜드마크이자 면세점을 비롯한 각종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어 8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산은 현재 매각가격을 높인 만큼 10년간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매각후 임대(Sale & Lease back) 옵션을 포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솔루스도 1조원의 매물로 나와 있다. 두산솔루스는 전기차 배터리인 동박·전지박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99억원, 영업이익은 101억원이었다. 분리매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유력 인수자인 롯데케미칼과 진행될 경우 통매각이 진행돼 1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 두산중 1조원 지원... 친환경 에너지 기업 재편

이에 따라 채권단은 매각시기 등을 고려해 두산중공업에 1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3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지원한 이후 지난달 8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과 외환채권의 완화 대출전환, 신수인수권부사채(BW) 상환지원 등을 통해 총 2조 4000억원을 지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유인 우주선' 팰컨9 발사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헤일리 로버트 벤킨이 크루드래건에 탑승한 스페이스X 팰컨9호가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후 날아가고 있다. 팰컨9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기업 최초로 발사한 민간 유인 우주선으로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뉴스1

“지방대학 통-폐합 안돼” 지역사회 반발

대학 이전·통합 등 구조조정에 주민 “청년이탈, 상권 붕괴 우려”

대학이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해당 지역 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중추 역할을 하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청년의 지역 이탈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와 교육 공동화 현상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우려다.

1일 대학가와 영동군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 유원대 영동본교가 구조조정에 따라 입학정원을 아산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군민들

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원대는 2021학년도 본교 입학정원을 140명 감축하는 대신 아산캠퍼스 정원을 그만큼 늘리는 구조조정을 마련했다.

유원대는 영동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0명을 증원하고 올해 모집을 중지한 와인식음료학과를 와인사이언스학과로 명칭 변경해 20명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경찰소방행정학부 150명과 사회복지상담학부 20명은 감축하기로 했다.

영동 본교에서 감축한 인원 140명 전원은 아산캠퍼스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뷰티케어학과 10명 ▲드론응용학과 10명 ▲공공인재행정학부 90명(신설)

▲문화복지융합학과 30명(신설) 총 14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영동군과 군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역이 그간 상생 발전을 위해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2014년 이후 5년간 이 대학에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건립비 등의 명목으로 33억 5900여만원을 지원했다. 13억 9000여만원을 들여 연계사업도 진행했다.

반발 여론이 형성되면서 사회단체장을 주축으로 '유원대 영동 본교 정원감축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원회는 “유원대의 학과 통폐합 방침이 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반하고, 코

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에 구조조정 철회 요청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도 제출할 계획이다.

안성시 소재 국립 한경대와 평택시에 있는 국립 한국복지대의 통합 움직임도 지역 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 '통합 반대' 성명을 낸 안성시주민자치협의회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 대학 통합을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해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임태희 한경대 총장과 이상진 한국복지대 총장은 양 대학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주민자치협은 “한경대의 자금 결실은 결코 대학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

라, 많은 안성시민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한경대는 대학과 지역의 미래가 달린 통합 관련 사안을 안성시민도 모르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양 대학 구성원들은 통합 찬성론으로 기울었다. 대학 자체 투표 결과 한경대는 교원 60.6%, 직원 및 조교 73.6%, 학생 85.5%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한국복지대도 교원 100%, 직원 및 조교 91.8%, 학생 71.1%의 찬성률을 보였다.

양 대학은 대학 통합에 구성원 대부분이 찬성함에 따라 이달 초 '대학 통합 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022학년도 통합 대학 출범에 따른 통합세부 실행계획도 본격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ihj@